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미치는 혼외성경험과 성별 영향

A Study on the permissiveness toward extramarit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extramarital sexual involvement and sex

이영숙* · 이영화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Yeong Sug Yi · Young Hwa Lee
Kunsan Nat' 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the sex and the extramarital sexual involvement on the permissiveness toward extramarital relationship. The relative influences which the sex and the extramarital sexual involvement have on the permissiveness were measured accordingly to the sex of the involved spouse.

From the sample of 492 married individual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

First, regardless of the sex of the respondents, extramarital relationship was mostly disapproved.

Irrespective of the sex of the involved spouse, men tended to be more permissive than women.

Respondents who had extramarital sexual involvements were more permissive than those who had not. Also, whether the respondent had experienced an extramarital sexual involvement or not, women's permissiveness did not depend much on the sex of the involved spouse. Meanwhile, men's permissiveness did.

Second, while both the sex and the extramarital sexual involvement were significant variables influencing men's extramarital relationships, only the extramarital sexual involvement proved to be significant in women's case.

This result identifies the sex double-standard for the permissiveness toward extramarital relationship.

Key Words : extramarital relationship, permissiveness, extramarital sexual involvement, sex

I. 문제의 제기

오늘날 결혼은 부부의 사랑을 기반으로 시작되고 유지된다. 그런데 부부관계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배우자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한국 성인 남성의 65%, 여성의 41%가 혼외정사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조사가 실시된 한국, 태

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 4개국과 홍콩 가운데 한국은 가장 혼외정사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혼외관계는 이제 특정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의 일이 된 듯한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혼외관계는 대부분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하여 부부관계를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가정폭력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부부간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가족해체의 중대한 사유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2005년 이혼한 사람의 이혼사유를 조사

* Corresponding author: Yeong-Sug, Yi
Tel: 063) 469-4623, Fax: 063) 469-4620
E-mail: ysyi@kunsan.ac.kr

1) 타임지는 '아시아의 섹스'란 제목의 커버스토리에서 한국 등 5개국에서 100명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지금까지 섹스한 상대가 몇 명이나'는 질문에 한국 남성은 2~4명(39%), 5~12명(27%), 1명(18%) 순으로 응답했으며 13명이 넘는다고 답한 경우도 17%에 달했다. 한국 여성은 1명(51%), 2~4명(39%), 5~12명(6%), 13명 이상(4%) 순이었다(동아일보, 2001. 3. 14).

한 결과 전체 이혼자의 약 7.6%가 배우자 부정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6). 여기에서 혼외관계에 대한 학문적 이해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론 가정과 사회의 안정성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혼외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우리 사회에서는 극히 최근에야 시작되어 혼외관계의 실태 등을 다룬 몇 편의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러한 연구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남은주, 1998; 천주현, 1992; 양다진, 2004)이 밝힌 바에 의하면 혼외관계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이 다른 태도와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한다. 남성은 여성보다 혼외관계에 개입되는 일이 많으며, 혼외관계에 대해서도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남자는 누구나 한번쯤 바람을 피운다' 라든지 '아내의 바람은 남편의 바람보다 더 나쁘다'라고 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 다른 고정관념이 만연되어있는 점(이영숙 외, 2000)을 고려하면 혼외관계에서 성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혼외관계를 바라보는 객체적인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혼외관계를 갖는 주체로서의 성도 포함시켜 탐색해보아야 할 필요성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적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혼외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혼외관계를 경험하는 주체의 성별에 따라 혼외관계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혼외관계를 남성의 혼외관계와 여성의 혼외관계로 나누어 그에 대한 허용도가 성별, 혼외성경험 유무에 따라 어떠한가?

둘째, 남성의 혼외관계와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적 태도에 미치는 혼외성경험과 성별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혼외관계 경험의 실태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서 혼외관계를 경험한 기혼여성들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혼외관계 경험이 더 많은 쪽은 남성들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생물학적 차이로 인한 것이기 보다는 이중적인 성규범과 남성중심의 성문화가 주도하고 있는 우리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선행연구(이영자, 1989; 장수입, 1992; 남은주, 1998; 공미혜, 2002)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남녀에 대한

이중적인 성규범은 남성은 경우에 따라 혼외관계를 해도 되고 여성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남녀 모두에게 내면화시킴으로써 혼외관계 경험에 있어서 남녀간에 심한 차이를 발생시키며(천주현, 1992), 또한 이에 관한 태도도 여성과 남성이 다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혼외관계에 대해 다르게 적용되는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와 혼외성경험에서의 남녀차이는 과거 남녀의 혼외관계에 대한 차별적인 처벌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혼외관계를 경험한 남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해와 용인이 베풀어져 관대한 경향이지만,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성도덕을 문란하게 한 여성이라는 오명과 함께 심한 사회적인 비난이 주어졌다. 이러한 사회 전반에 걸친 차이 나는 가치관은 혼외관계의 주체에 따라서 서로 다른 태도를 지니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남녀 응답자의 77.8%가 어떤 경우이든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53.4%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여성의 혼외관계보다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해 더 관대하다는 결과를 밝혀 이를 확인해 주었다. 이러한 경향은 양다진(2004)의 혼외관계 의식에 대한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에 대한 혼외관계 의식에 있어서 '기혼녀는 절대 혼외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불허용적인 응답이 남성은 53.8%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비교적 허용적인 응답이 55.9%로 나타난 반면, 기혼남성에 대한 혼외관계 의식에 있어서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 비교적 허용적인 응답을 남성들은 60%, 여성은 56.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혼외관계를 하는 주체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여성의 혼외관계보다 남성의 혼외관계 경험에 관대한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혼외관계의 주체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혼외관계를 바라보는 자의 성에 따라서도 다른 태도를 보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과 천주현(1992)의 연구 결과를 보면 여성은 혼외관계의 주체가 누구이든간에 남성보다 더 엄격한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경향을 밝힌 남은주(1998)도 자신의 혼외관계에 대하여 조사하여 '절대 안 된다'라는 태도가 남녀 전체의 52.4%에 이르렀다는 결과를 밝혔는데, 이 중 여성은 73%가 불허용적 태도로 응답하여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용적이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전체의 45.4%가 가진데 반해, 남성은 이러한 응답을 60.1%나 하여 매우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남성은 여성보다 혼외관계에 대해 대체로 더 허용적이면서도 성별 이중적인 허용태도를 더

내면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혼외관계에 가지는 허용적 태도를 성별로 밝히려는 연구가 몇 편 있는 반면, 혼외성경험에 따라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어떠한지를 밝힌 연구는 드물다. 물론,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느 것이 선행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관점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행동과 태도 간에 관계가 깊다는 점이다. 즉 혼외관계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혼외관계에 대하여 내재적으로 동기부여가 이루어져 경험을 할 가능성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혼외관계를 경험하면서 얻는 보상이 긍정적이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에 대한 태도는 더욱 긍정적으로 된다고 볼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혼외관계 태도가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천주현, 1992; Treas & Giesen, 2000; Liu, 2000)를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경험은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혼외관계의 경험과 태도가 불가분의 양방적인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혼외관계 혼외성경험에 따라 태도는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2006년 1월~3월 까지 56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518부를 회수하고, 이중 부실 기재한 26부를 제외한 492부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은 남자 248명(50.4%), 여자 244명(49.6%)이며, 연령은 30-40대가 376명(77.4%)으로 대부분이었다. 소득수준은 100-3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270명(55.9%)으로 가장 많으며, 300만원(36.4%), 100만원 미만(7.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344명(70.1%)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기간의 경우 11-20년이 168명(34.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10년, 5년 이하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 21년 이상이 가장 낮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종교는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04명(62.2%),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185명(37.8%)이고, 결혼은 연애혼 297명(60.6%),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매혼(20.8%), 절충혼(18.6%) 순이었다.

2. 측정도구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남녀 모두에게 '기혼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적 태도'와 '기혼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적 태도'로 분류하여 질문하였다. 응답의 범위는 '허용', '경우에 따라 허용', '불허용' 중 한 문항을 선택하도록 구성되었다. 혼외관계 경험은 혼외의 성경험을 묻는 문항으로 '결혼 후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性) 경험이 있는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있다', '없다'로 답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3. 자료 분석

SPSS WIN 10.0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기혼남녀가 갖고 있는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적 태도의 경향과 그것이 관련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χ^2 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성과 혼외성경험이 혼외관계 허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

1) 성별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혼외관계의 주체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에게서 '허용'한다는 응답보다 '불허용'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있어서 남녀 모두 대체로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천주현, 1992; 양다진, 2004; 김병수, 2007)와 유사하다.

그러나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는 '허용'과 '불허용'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여성의 혼외관계에는 이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혼외관계의 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볼 때 남성보다 여성에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에 대한 이중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음에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태도를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보면, 혼외관계의 주체에 관계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허용적인 태도가 적었다. 즉, '남성의 혼외관계'(표 1)에 대한 허용도로 남성들은 65%가 '허용'한다고 응답하였으

<표 1>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

N(%)

구분		전체	남성	여성	χ^2
남성의 혼외관계	허용	233(47.7)	160(65.0)	73(30.2)	59.47***
	불허용	255(52.3)	86(35.0)	169(69.8)	
	계	488(100)	246(100)	242(100)	

***p<.001

<표 2>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

N(%)

구분		전체	남성	여성	χ^2
여성의 혼외관계	허용	167(34.5)	101(41.1)	66(27.7)	9.51**
	불허용	317(65.5)	145(58.9)	172(72.3)	
	계	484(100)	246(100)	238(100)	

**p<.01

<표 3> 혼외성경험과 허용도

N(%)

태도	경험	전체	혼외성경험		χ^2
			있다	없다	
남성	허용	160(69.7)	116(79.5)	44(44.0)	32.90***
	불허용	86(30.3)	30(20.5)	56(56.0)	
	계	246(100)	146(100)	100(100)	
여성	허용	66(27.7)	18(85.8)	48(22.2)	38.54***
	불허용	171(72.3)	3(14.3)	168(77.8)	
	계	237(100)	21(100)	216(100)	

***p<.001

나, 여성의 경우 30.2%에 불과해 남성에 비해 여성은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해 매우 불허용적으로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남성들 스스로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혼외관계'(표 2)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불허용'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여성은 72.3%로 과반수 이상이 불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고, 남성(58.9%)도 절반 이상이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불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점은 눈여겨 볼만한 것으로 <표 1>에서 살펴본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남성의 허용도와는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결과이다. 즉, 남성은 남성 스스로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관대함을 보였으나, 여성은 '남성의 혼외관계' 뿐 아니라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도 엄격한 태도를 보였고, 또한 남성은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허용(65.0%)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반대로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불허용(58.9%)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에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남성이나 여성의 혼외관계 모두에 대해 더 엄격하다는 결과를 밝힌 바와 동일한 결과이다. 혼외관계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이중적인

태도가 남성에게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내면화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한편 혼외관계에 대한 태도와 실제 경험 간의 차이를 비교해볼 때 허용도가 혼외성경험 정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혼외관계에 대한 전국적인 정확한 통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과 사적 영역인 혼외관계에 대한 응답의 신뢰도를 완전히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해석에 신중해야하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혼외관계에 대한 태도와 행동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덧붙여 주목해야 할 점은 혼외관계에 대한 태도와 경험이 성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남성의 경우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65.0%(160명)이며 실제 혼외성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59.3%(146명)인데 반해, 여성은 각각 27.7%(66명), 8.8%(21명)로 나타났다(표 3). 즉 남성은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 및 혼외성경험이 모두 전체조사대상자의 과반수가 넘었으나 여성은 허용도 및 혼외성경험 모두 남성에 비해 훨씬 적은 비율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에게 있어서는 여성보다 혼외관계 경험을 가능하게하고 또한 부추기는 외부적 요인도 작용하

<표 4> 남성의 혼외성경험 유무와 허용도

N(%)

태도	경험	전체	남성의 혼외성경험		x ²
			있다	없다	
남성의 혼외관계	허용	160(69.7)	116(79.5)	44(44.0)	32.90***
	불허용	86(30.3)	30(20.5)	56(56.0)	
	계	246(100)	146(100)	100(100)	
여성의 혼외관계	허용	101(41.1)	77(52.7)	24(24.0)	20.26***
	불허용	145(58.9)	69(47.3)	76(76.0)	
	계	246(100)	146(100)	100(100)	

***p<.001

<표 5> 여성의 혼외성경험 유무와 허용도

N(%)

태도	경험	전체	여성의 혼외성경험		x ²
			있다	없다	
남성의 혼외관계	허용	73(30.3)	18(81.8)	55(25.1)	30.44***
	불허용	168(69.7)	4(18.2)	164(74.9)	
	계	241(100)	22(100)	219(100)	
여성의 혼외관계	허용	66(27.7)	18(85.8)	48(22.2)	38.54***
	불허용	171(72.3)	3(14.3)	168(77.8)	
	계	237(100)	21(100)	216(100)	

***p<.001

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 사회에서 혼외관계의 위험요인이 남성에게 더 많다는 현실에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2) 혼외성경험별 혼외관계 허용도

남성의 경우, 혼외성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혼외성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남성과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해 허용정도가 월등히 높았다. 이는 남성의 혼외성경험 유무에 따라 혼외관계의 허용도에 대해 차이가 있는 태도를 지닌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허용도의 차이는 혼외관계 주체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즉, 혼외관계 경험이 있는 남성의 79.5%가 기혼남성이 혼외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허용하는 태도를 가진 반면, 기혼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는 52.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혼외성경험 유무에 따라서 혼외관계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에 차이를 보이거나 그 차이는 혼외관계의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여성도 남성이나 마찬가지로 혼외성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혼외성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남성과 여성 모두의 혼외관계에 대해 허용적인 비율이 불허용적인 태도보다 월등

히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혼외관계 주체에 따라서 차이나는 비율을 보인 것도 남성이나 마찬가지로, 자신과 같은 성(여성은 여성의 혼외관계, 남성은 남성의 혼외관계)에게 더 허용적이라는 사실 또한 유사한 경향이다.

그러나 허용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혼외성경험이 있는 남성은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해 79.5%,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해 52.7% 허용하는데 반해, 혼외성경험이 있는 여성은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해 81.8%,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해 85.8% 허용하였다. 또한 혼외성경험이 없는 남성은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해 44.0%,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해 24.0% 허용하는데 반해, 혼외성경험이 없는 여성은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해 25.1%,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해 22.2% 허용하였다. 즉 여성은 혼외성경험유무에 따라 남성과 여성에 따른 허용도의 차이가 적으나, 남성은 혼외성경험유무에 따라 남성의 혼외관계와 여성의 혼외관계에 따른 허용도의 차이가 큼을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혼외성경험에 따라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차이가 있으나 그 정도가 다르다. 이는 혼외관계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이중적인 태도의 차이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표 6>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	Wald	Exp(B)	B	Wald	Exp(B)	B	Wald	Exp(B)
배 경 변 인	나이	.56**	6.75	1.75	.39	2.96	1.48	.38	2.42	1.46
	교육수준	.19*	4.27	1.21	.15	2.26	1.16	.23*	4.67	1.26
	소득수준	-.06	.34	.93	-.01	.00	.99	-.05	.20	.94
	종교(있음=1)	-.81***	16.69	.44	-.61**	8.42	.53	-.55*	5.95	.57
성	성(남=1)				1.43***	50.03	4.19	.64**	7.43	1.91
경험	경험(유=1)							1.85***	50.48	6.38
-2LL		626.94			574.10			518.85		
Cox & Snell R ²		.04			.14			.24		
Nagelkerke R ²		.06			.19			.32		
chi-square		22.45***			75.29***			130.54***		

*p<.05 **p<.01 ***p<.001

- 계수(B)가 음수인 경우에는 Exp(B)가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준거범주를 바꾸어 해석하는 것이 용이하다. 참고적으로, 바뀐 준거범주의 Exp(B)를 계산하는 식은 '1/원래준거범주의 Exp(B)'이다.

- Exp(B)는 계수의 지수 값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보다 용이하게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혼외관계에 대해 허용적일 수 있는 확률 대 불허용적일 수 있는 확률을 Exp(B)로 사용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2. 혼외관계 허용도에 미치는 혼외성경험과 성별 영향력

1) 남성의 혼외관계의 허용도에 미치는 혼외성경험과 성별 영향력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설명력을 탐색하기 위해 배경변인, 성, 그리고 혼외성경험유무 변수를 차례로 투입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시도해보았다. 그 결과, 모델 1에서는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Nagelkerke R²이 .06이었으나, 성 변수를 추가한 2단계에서는 .19로 높아졌고, 혼외성경험 변수를 추가한 3단계에서는 .13이 증가하여 .32로 높아졌다. 즉 배경변인, 성, 그리고 혼외관계 혼외성경험이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를 32%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배경변인은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를 6% 설명하는데 반해 성과 혼외성경험유무는 각각 13%씩 설명함으로써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는 각자의 배경변인보다 성과 혼외성경험의 설명력이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변수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혼외성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혼외성경험이 있는 사람이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질 확률이 커진다. 특히 혼외성경험이 있는 사람이 혼외성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를 가질 확률이 6.38배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혼외성경험이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변수임이 밝혀졌다.

2) 여성의 혼외관계의 허용도에 미치는 혼외성경험과 성별 영향력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배경변수만을 넣은 1단계에서는 나이, 교육수준과 종교가 유의하며 5%의 설명력을 가지나, 성 변수를 추가한 2단계에서는 나이, 종교, 그리고 성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설명력은 7%이었다. 혼외성경험 변수를 추가한 3단계에서는 설명력의 증가가 12% 더해져 총 19%로 설명력이 높아졌다. 이 때 성은 의미 없는 변인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나이, 교육수준, 종교 그리고, 혼외성경험이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를 19%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없는 사람이, 혼외성경험이 있는 사람이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성은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진 것과는 달리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적 태도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남성이나 여성의 태도가 유이하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와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비교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바 배경변인 중 소득수준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교육수준, 종교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성의 혼외

<표 7>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	Wald	Exp(B)	B	Wald	Exp(B)	B	Wald	Exp(B)
배경변인	나이	.66**	8.42	1.94	.60**	6.76	1.83	.61*	6.22	1.85
	교육수준	.19*	3.65	1.21	.17	3.01	1.19	.25*	5.44	1.29
	소득수준	-.01	.01	.98	.00	.00	1.00	-.03	.08	.96
	종교(있음=1)	-.71***	11.76	.49	-.62**	8.79	.53	-.57**	6.71	.56
성	성(남=1)				.45*	4.99	1.58	-.45	2.86	.63
경험	경험(유=1)							1.69***	40.29	5.46
-2LL		580.78			575.76			530.81		
Cox & Snell R ²		.04			.05			.13		
Nagelkerke R ²		.05			.07			.19		
chi-square		19.14***			24.16***			69.11***		

*p<.05 **p<.01 ***p<.001

관계에 대한 허용도와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차이가 드러나는 변인은 나이와 성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성은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는 영향을 미치나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즉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적 태도에 있어서 남성은 여성보다 더 허용적이나,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있어서는 남성이나 여성의 태도가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혼외관계를 가지는 주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서 허용적 태도가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이 현상은 이중적 성가치관이 아직도 유효한 한국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주목할 점은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서 보다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혼외성경험이라는 사실이다. 곧 혼외성경험이 회귀식에 포함되었을 때 설명력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남성 13%, 여성 12%) 혼외성경험을 한 사람은 혼외성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정도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도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있어서 성에 따라 차이난다는 결과를 염두에 둘 때 수긍이 가는 결과이다.

혼외성경험이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본 결과는 혼외관계를 경험한 남성이 혼외관계에 대한 태도가 좀더 허용적이라는 선행연구(Liu, 2000)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 결과를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혼외성경험을 유발하는 중요한 변인(천주현, 1993; Treas & Giesen, 2000)임을 밝힌 결과와 관련시켜 볼 때, 혼외성경험과 그에 대한 허용적태도 사

이에는 강한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허용적 태도가 혼외성경험을 유발하는 정도가 더 큰 것인지 혼외성경험이 허용도를 결정하는 정도가 더 큰 것인지를 밝히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보강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적 태도에 미치는 혼외성경험과 성별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혼외관계를 기혼남성의 혼외관계와 기혼여성의 혼외관계로 나누어 혼외성경험과 성별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기혼자 4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는 혼외관계의 주체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에게서 '허용'한다는 응답보다 '불허용'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정도가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보면, 혼외관계의 주체에 관계없이 여성은 남성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적게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혼외관계에 대하여 여성은 남성보다 허용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혼외성경험에 따른 허용도를 보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혼외성경험 유무에 따라서 혼외관계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에 차이를 보이며 그 차이는 혼외관계의 주체에 따라 달라짐이 밝혀졌다. 또한 여성은 혼외성경험유무에 따라 남성의 혼외관계와 여성의 혼외관계에 따른 허용도의 차이가 적으나, 남성은 혼외성경험유무에 따라 그 차

이가 큼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성적 태도가 남성에게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내면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결과이다.

둘째,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미치는 성과 혼외성경험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두 변인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변인들은 각각 13%씩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배경변인보다 큰 영향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특히 혼외성경험이 있는 사람이 혼외성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를 가질 확률이 6.38배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혼외성경험이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대단히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은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와는 달리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혼외성경험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를 설명하는 양을 비교해볼 때, 성은 2%, 혼외성경험은 12%로서 남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의 설명량에 비해 현격하게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혼외관계의 주체가 남성인 경우에는 성과 혼외성경험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지만 혼외관계의 주체가 여성인 경우에는 성차가 없고, 혼외성경험도 혼외관계의 주체가 남성인 경우보다 적은 부분만을 설명해 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혼외관계와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가 성과 혼외성경험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혼외관계의 주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밝혀냈다. 따라서 혼외관계에 대한 태도를 보다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을 포함한 혼외관계의 주체를 보다 다양하게 포함시켜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 결과 혼외관계는 어느 한 변인으로 인한 현상이 아닌 여러 변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쳐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변인 외에 중요한 다른 변수들이 존재할 것이므로 이러한 변수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묘한 심리적 차이까지 밝힐 수 있는 질적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적인 친밀한 관계만을 혼외관계로 보고 혼외성경험에 따른 허용적 태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현실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혼외성경험과 정서적인 경험을 포함한 혼외관계 경험을 가진 경우를 비교 연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미치는 배경변인 중 공통적으로 유의한 변인은 교육수준과 종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양다진, 2004 ; 김병수, 2007)에서 밝힌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것은 표집을 포함한 연구 방법 상의 차이에 의한 영향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들이 실제로 유의한 변인인지 아닌지를 보다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은 임의적으로,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표집 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주제어 : 혼외관계, 허용도, 혼외성경험, 성

참 고 문 헌

- 공미혜 (2002) 기혼여성의 결혼 불만족과 혼외관계에 대한 탐색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1(2), 75-85.
- 김병수 (2007) 혼외관계의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10(22), 19-35.
- 남은주 (1998) 남녀의 외도원인에 관한 연구. 대구 효성기독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동아일보* 2001. 3. 14.
- 양다진 (2004) 기혼남녀의 혼외관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박경란·전귀연 (2000) 혼외관계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이영자 (1989) 성일탈과 여성.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 5집*.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 장수입 (1995) 지배문화 남성문화-한국사회의 성매매와 남성 이데올로기, 또 하나의 문화 4호. 서울 : 청하.
- 천주현 (1993) 성별에 따른 혼외성관계 허용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6) 인구동태통계연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Liu,C.(2000) A Theory of marital sexual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363-374.
- Treas, J. and Giesen, D. (2000) Sexual Infidelity Among Married and Cohabiting America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1, pp. 48-60

(2008. 6. 4 접수; 2008. 7. 31 채택)